

# [주간 카.이.돌]2021년 1월 3주차 자동차 업계 이슈 정리

✎ 최정필 기자 | ⓒ 승인 2021.01.22 11:55

한주 동안의 자동차업계 이슈를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어떤 일로 뜨거웠을까요?

카매거진에서 선정한 이슈를 살펴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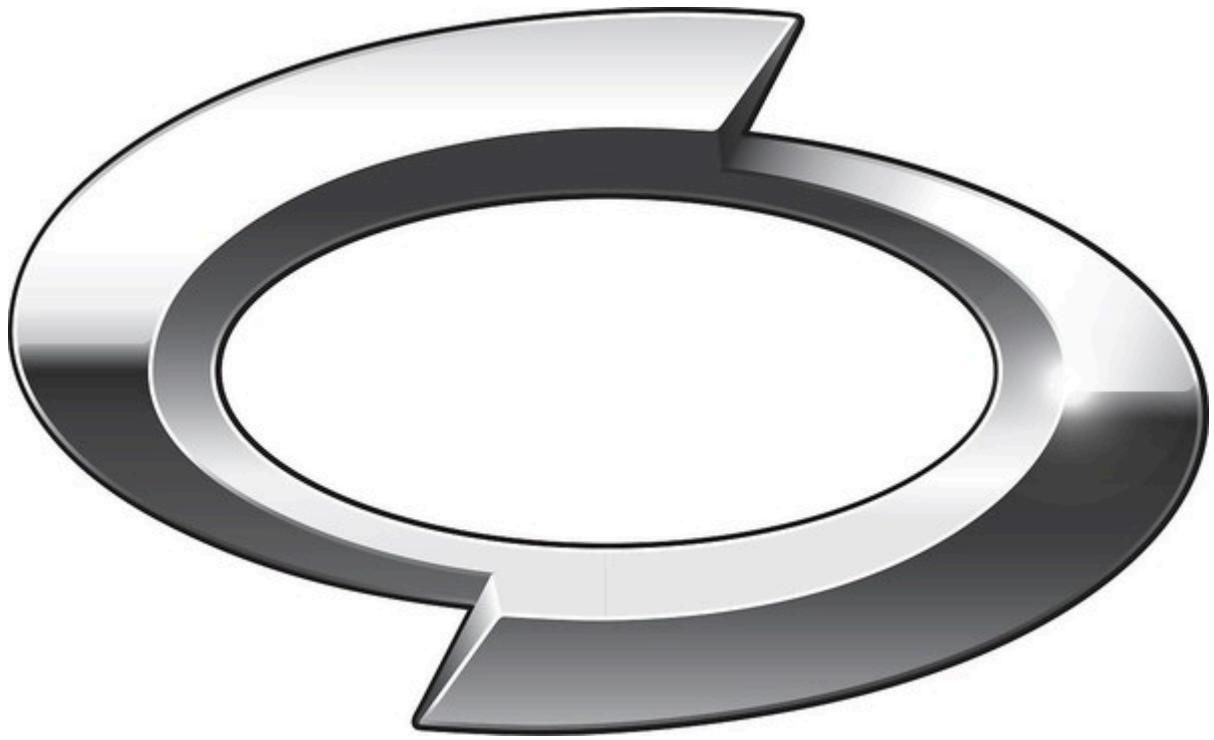
### ◆ 르노그룹의 혹독한 다이어트, 르노삼성도 못피했어요

르노 그룹이 지난 14일(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안 '르놀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안 발표를 통해 기존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 중심에서 탈피해, 앞으로 수익성, 현금 창출, 투자 효과 등의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르놀루션 경영전략안은 소생, 혁신, 변혁 등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2023년까지 수익성과 현금 창출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2025년까지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를 넘어 테크와 에너지, 모빌리티로 전환시켜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더불어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 조직 개편을 통한 수익성 추구에 나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2023년까지 그룹 영업 이익률 3% 이상 달성, 약 30억 유로의 현금 유동성 확보 (2021-23년 누적) 및 R&D와 설비 투자 비용을 수익의 약 8%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그룹 영업 이익률 최소 5% 달하고, 약 60억 유로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2019년 대비 최소 15포인트 이상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ROCE)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들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포함됐습니다. 한국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인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수익성 저하와 심화된 경쟁 구도 속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서바이벌 플랜'이라는 이름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구조조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과 임원 감축 및 임원 임금 삭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실적 역시 2020년 전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 모두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판매 대수는 11만 61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5%가 감소했고, 전체 생산 대수 역시 11만 21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5%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0년 수출 실적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공장 전체 수출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던 닛산 로그 생산이 3월로 종료되며 전년 대비 80% 가까이 대폭 감소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내수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현재의 판매 및 생산량에 대응해 고정비 및 변동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 절차를 거쳐 향후 르노 그룹으로부터 신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며, 자녀 1인당 1000만원 학자금 지원, 2년 내 차량 구매 시 할인(1대) 등이 포함됐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인당 약 1억 8000만원 수준입니다.

한편 르노삼성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2년 8월 이후 약 9년만입니다. 당

시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2년 1700억이 넘었던 적자를 이듬해 445억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또 한번의 위기가 닥친 르노삼성자동차.이번에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 ◆ 현대차의 전기차 생태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을 구축하고 21일 (목)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은 내연기관의 대표적 상징물인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탈바꿈하고, 회사가 지향하는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면적 4066m<sup>2</sup>(약 1230평) 규모로 회사가 개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 8기가 설치됐습니다. 면적과 설비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자랑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하이차저는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350kw급 고출력·고효율 충전 기술이 적용됐으며, 800V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하이차저로 충전할 경우 18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연결선에 부분 자동화 방식이 적용돼 연결선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고 손쉽게 충전구를 연결할 수 있고, 듀얼 타입 충전구로 전기차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두대를 동시 충전할 경우에는 각각 175kw 출력으로 충전 가능하네요.



뿐만 아니라 넥소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해 수소 산업 확대에 앞장섭니다.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독자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건데요. 지난 2019년 4월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울산 화력발전소 내 1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1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됐습니다. 넥소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수소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 해당 설비는 연간 생산량이 약 8000MWh로 이는 월 사용량 300kWh 기준 약 22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 대의 넥소 수소전기차 파워 모듈이 컨테이너에 탑재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컨테이너 대수에 따라 수십 내지 수백 MW로 공급량 확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빠른 출력 조절 측면에서도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해당 설비에는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자동차용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돼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전력수급 변동성의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네요.



#### ◆ 벤츠 EQA 공개! EQC 보단 나올까?

메르세데스-벤츠가 메르세데스-EQ의 새로운 콤팩트 순수 전기차 더 뉴 EQA를 20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더 뉴 EQA는 메르세데스-EQ 패밀리에 새롭게 합류한 모델로 '진보적인 럭셔리'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미학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GLA 모델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전기 파워트레인을 더 했으며, 일렉트릭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최적화된 에너지의 사용을 제안하는 에코 어시스트, 각종 레이더 및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운전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진보적인 럭셔리'를 상징합니다. 전기차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았고요.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삼각별이 중앙에 위치했으며, 전면부를 가



로지르는 광섬유 스트립은 풀 LED 헤드램프의 주간 주행등과 이어져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에는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LED 후미등이 LED 조명 스트립과 하나로 이어졌네요.

전방과 후방의 짧은 오버행과 함께 GLA 모델의 디자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플러시 휠처럼 존재감을 강조했으며, 차체에서 도드라진 숄더 라인과 쿠페를 연상시키는 옆 창문 라인 또한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측면과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근육질의 숄더 부분인데요. 프론트 윙에는 하이글로스 블랙 색상 배지에 푸른색의 EQA 레터링이 적용됐고요. 도어에는 도어실이 적용돼 개폐 시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전천후 보호 클래딩을 통해 차를 더욱 단단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방과 후방에 가미된 언더라이드 가드와 함께 오프로드 이미지를 부여한 것도 특징. 리어 라이트는 멀티섹션 디자인을 적용해 트렁크 입구가 넓어지며 적재가 용이해지는 동시에 후면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실내에도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백라이트 트림과 통풍구, 좌석 및 차량 열쇠에 적용된 로즈골드 색상의 데코 트림이 대표적. 2개의 7인치(17.78cm) 디스플레이 혹은 2개의 10.25인치(26cm)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요. 총 5개로 구성된 원형 통풍구는 터빈 형태로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 유도판이 적용됐습니다.

뒷좌석의 등받이는 40:20:20으로 구성돼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앞좌석 최대 헤드룸은 1037mm, 앞좌석과 뒷좌석 레그룸은 각 1045mm, 896mm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 탑재됐으며,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메르세데스-EQ 항목을 선택하면 충전 옵션, 전력 소비 및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계기반 내부 오른쪽 디스플레이에는 소비전력을 나타내는 전력계가 위치했으며, 상단은 주행시 사용한 전력의 백분율, 하단은 회생제동을 통해 생성된 전력의 백분율을 표시하고요. 좌측 계기반에는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된다. 계기반 디스플레이 스타일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모던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디스크리트 총 네 가지 모드가 제공됩니다.

세부 모델은 더 뉴 EQA 250 모델이 우선 출시되고요. 140kW의 출력과 1회 완충시 426km의 주행거리(WLTP 기준)를 제공합니다. 차체 하부에는 66.5kWh 더블-데커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며,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추가 장착한 사륜구동 모델과 500km이상(WLTP 기준)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모델 등 추가적인 라인업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QA는 교류(AC) 방식의 완속 충전기를 통해 최대 11kW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직류(DC) 방식의 급속 충전기의 경우, 100kW의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급속 충전 환경과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30분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에너지 회생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에코 어시스트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에코 어시스트는 내비게이션 데이터, 교통 표지판 인식 및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안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려주고요. 에코 어시스트가 참조하는 정보에는 경로 정보(굽은 길, 로터리, 경사로), 속도 제한 지역, 선행차와의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하여 제시하는데요. 주행 가능 거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전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지형과 날씨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이나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공개된 더 뉴 EQA와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를 연내 국내에 선보이며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고,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